

# 아키타현 나마하계의 ‘민속’적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조규현\*\*  
chokyuheon@naver.com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1 나마하계와 시츠키           |
| 2. 나마하계의 ‘민속’적 가치       | 3.2 나마하계세토마쓰리의 ‘민속’적 가치 |
| 2.1 나마하계 민속에 대한 관심      | 3.3 ‘글로벌콘텐츠’로 진화하는 나마하계 |
| 2.2 금기와 시츠키             | 4. 나오며                  |
| 3. 나마하계의 ‘문화콘텐츠’로서 활용양상 |                         |

주요어: 문화콘텐츠(Cultural content), 나마하계(Namahage), 민속(Folklore),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의례(Ritual)

## 1. 들어가며

일본 아키타현(秋田県) 서부에 있는 오가반도(男鹿半島)는 나마하계(なまはげ)라는 도깨비 마스크트로 유명한 곳이다. 2009년에 방영된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이병헌이 분장을 하여 강렬한 큰 북 퍼포먼스를 선보인 덕분에 당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나마하계는 원래 아키타현 오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된 정월 대보름 행사에 나타나는 내방신(來訪神)을 가리킨다. 이 민속행사는 지금은 대부분 12월 3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마하계로 분장한 마을 청년들이 각 집을 방문하여 ‘게으른 아이는 없느냐?’ ‘우는 아이는 없느냐?’ 라고 아이들을 혼시하고 겁박하는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마하계는 아키타현 오가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1978년 국가 지정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나마하계 풍습과 비슷한 사례가 내방신 전승으로 일컬어지며 전국적으로도 널리 분포하는데 최근 일본 정부에서는 이시가와현(石川県) 노토(能登)의 아마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 한일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메하기(アマメハギ), 오키나와현(沖繩県) 미야코지마(宮古島)의 판토(パントウ) 등 전부 7개 행사를 ‘내방산: 가면 & 가장의 신들’로 묶어 무형문화유산에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sup>1)</sup> 나마하게는 오가시에 있는 나마하게 자료관을 통해 관련 자료가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아키타현의 대표 마스코트로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서도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나마하게가 쇼가쓰(正月)의 민속행사 속 나마하게의 방문이 전통사회에서의 가정교육인 시츠케(しつけ)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의 마레비토(まればいと)의 관련성 속에서 산신(山神)으로서 나마하게의 성격을 위치 짓고, 정월대보름에 산신의 방문이 아이들에게 ‘금기’라는 형태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현재 문화콘텐츠로서 활용양상은 우선 오가지역의 관광콘텐츠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나마하게세토마쓰리(なまはげ柴灯まつり)의 모습을 살펴본다. 나마하게세토마쓰리가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요인을 ‘민속’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분석한다.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일본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는 그 중 하나인 ‘일본의 마쓰리 RE-DESIGN 프로젝트’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아키타현 오가의 나마하게 속 ‘민속’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와 지역과 국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문화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 2. 나마하게의 ‘민속’적 가치

### 2.1 나마하게 민속에 대한 관심

<그림1>은 스가에 마스미(菅江真澄, 1754-1829)가 그린 『오가의 찬바람(男鹿の寒風)』 속 나마하게 이다. 이것이 나마하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스가에게 1811년 1월 15일에 방문한 오가의 미야자와촌(宮沢村) 쇼가쓰의 풍경을 그린 것인데 이곳에서는 나마하게를 나모미하기(生身剥ぎ)로 불렀다.<sup>2)</sup> 이 그림을 보면 적색과 청색의 가면을 쓴

1)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ity.oga.akita.jp/index.cfm/14,12737,52,html>

이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2017년 11월 경 유네스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 추운 겨울 시기에 일도 하지 않고 난로 불을 오랫동안 켜고 있으면 피부에 불로 인한 반점이 생긴다.

두 개의 나마하게가 도롱이와 몸빼 바지를 입고 있으며 수갑과 통과 같은 것을 몸에 두르고 한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채 어머니 품속에 숨어 있으며 집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떡과 같은 것을 나마하게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림1> 菅江真澄가 그린 나마하게



<그림2> 『風俗画報』 속 나마하게

다음으로 <그림2>는 1900년 『풍속화보(風俗画報)』(東陽堂, 제202호)에 실린 나마하게로 전국적인 출판물에 소개된 최초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에서도 2개의 나마하게가 나타나는데 이 둘 모두 나마하게의 가면을 쓴 채 식칼을 들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앞의 스가에 그림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여기에서도 나마하게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나, 문 틈새를 통해 등근 접시에 떡과 같은 것을 올려 문 틈새를 통해 나마하게에게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3)</sup>

이상 나마하게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을 확인하였는데, 정월대보름에 방문하는 나마하게는 괴기스러운 외모와 행위를 하면서 방문하여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한편 각 집에서는 이 나마하게에게 마치 감사를 표하듯 ‘떡’과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مام, 나모미, 나고미 등으로 불리며, 게으른 사람의 상징이 되었다. 나마하게의 어원은 그것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柳田 『国男(2001)』『柳田国男全集』第28卷 筑摩書房, p.97  
오가의 나마하게 홈페이지 참조<http://www.namahage-oga.akita.jp/index.html>

3) 日本海城文化研究所(2004)『ナマハゲ—その面と習俗(男鹿半島史)』日本海城文化研究所, pp.15-20

초창기 일본민속학을 대표하는 두 학자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모두 일본의 신 관념을 규명하는 관점에서 나마하계에 주목한 바 있다. 오리구치는 나마하계를 마레비토(まればいと)의 한 종류로 보아 정월대보름에 산에서부터 마을에 내려와 마을의 정령이나 재앙을 진압하여 안녕을 기원하는 내방신(來訪神)으로 보았다. 야나기타는 나마하계를 전국 각지에 산재(散在)하는 정월대보름의 내방자 중 하나로 도시가미로 보았으며 이것은 새해를 맞아 찾아오는 조상신의 방문이자 한해의 풍작(豊作)을 위해 맞이되는 집에 주안점을 두었다. 나마하계는 이러한 일본민속학의 대표적 두 학자에 의해 일찍이 주목받아 단순한 ‘오니(鬼)’가 아닌 내방신(來訪神), 도시가미(年神) 등의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향후 일본문화론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렇듯 야나기타와 오리구치는 각각 농경 및 조상신과 의인화 및 재앙의 진압이라는 다른 성격으로 나마하계를 규정하였는데, 이들이 나마하계의 외전 중에서도 ‘가면’의 상징성이 무엇인가로 그 존재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본 스가메의 그림에 두 개의 나마하계가 있었는데, 적색 나마하계는 뿔이 있는 오니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반면에 청색 나마하계는 노(能) 가면의 우소부키(ウソぶき)의 얼굴 즉 노인(翁) 모습에 가깝다. 따라서 나마하계는 오니와 노인의 가면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중층적(中層的)으로 파악하는 가설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마하계의 초창기 그림과 나마하계에 대한 민속학적 학설 등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나마하계는 새해를 맞이하여 각 집을 방문하는 도시가미(年神)를 형상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에게 건네주는 떡과 같은 음식은 도시가미에 대한 일종의 공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나마하계 풍습은 기본적으로 새해에 도시가미를 맞이하여 행복을 기원하는 마을의 소박한 마쓰리(祭り)라는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아이들을 겁박하는 모습이 나마하계 민속의 가장 대표적인 풍경이라는 점이다. 나마하계는 어린이에의 가정교육인 시즈케(しつけ)로서의 속성을 지닌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키타현 오가의 나마하계는 정월대보름에 ‘산’에서 내려온다고 말해진다. 새해를 맞이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나마하계를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4) 이에 대해서는 柳田国男『雪国の春』와 折口信夫『春来る鬼』 등이 대표적이다. 八木康幸(2010)「なもみはげたか-折口信夫、柳田国男とナマハゲに関するノート」『人文論究』関西学院大学人文学会、pp.130-137

## 2.2 시즈케와 금기

가미카쿠시(神隠し)란 어느 날 돌연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이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 각지에 관련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데 신이 인간을 이계(異界)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많다. 이른바 실종사고를 과거에는 가미카쿠시로 설명했던 것이고,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통사회에서는 가미카쿠시가 되는 것을 매우 염려하고 중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미카쿠시 되기 쉬운 장소는 산기슭이나 물가와 같은 위험한 곳이고, 시간은 저녁 무렵이다. 따라서 각 부모들은 아이들이 밤 늦은 시간에 이러한 장소에 가는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야나기타 구니오의 『도노모노가타리(遠野物語)』를 보며 ‘산신’에 대한 ‘금기’가 시즈케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sup>5)</sup>

### 02. 정월 대보름에 나타나는 산신

정월 대보름 밤을 고쇼가쓰라고 한다. 저녁에 아이들이 복신이라고 해서 네 다섯명이 무리를 이루어, 자루를 들고 인가로 간다. 새벽부터 “복신이 찾아왔다”고 소리를 지르고서 떡을 얻어가는 풍속이 있었다. 저녁이 지나면 이 날 밤에는 사람들이 결코 문밖으로 나다니지 않았다. 고쇼가쓰에 밤이 절반 정도 지날 무렵에 산신이 나타나서 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야마구치의 마루코다치에 사는 오마사라는 서른 대여섯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열두세 살 정도 되던 해의 일이다. 무슨 까닭인지 혼자서 복신이 되어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 쓸쓸한 길을 혼자서 돌아오다가 반대편에 걸어오는 키가 큰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얼굴은 아주 붉고 눈이 매우 반짝거렸다. 자루를 내던지고 도망쳐 왔으며 나중에 크게 앓았다고 한다.<sup>6)</sup>

### 103. 정월대보름에 나타나는 유키온나(雪女)

정월 대보름의 밤 또는 대보름이 아니라도 겨울철 밤에는 유키온나가 나타나서 논다고 한다. 많은 동자들을 데리고 논다고 한다. 마을 아이들이 겨울철에 근처에 있는 언덕으로 가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썰매를 타고 놀다가 밤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름날 밤에는 유키온나가 나타나므로 집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유키온나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sup>7)</sup>

5) 여기에서는 김용의(2009)의 번역본을 재인용함. 야나기타 구니오 지음, 김용의 역『도노모노가타리』 전남대학교 출판부 참조

6) 위의 책, p.166

7) 위의 책, p.168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월대보름에 ‘산신’이 찾아온다. 이날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산신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월대보름인 오늘 만큼은 산신이 확실하게 마을에 찾아오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산신을 만나면 병에 걸린다는 등의 전설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니거나 위험한 곳에 가는 행위는 산신을 만나기 때문에 가지 않게 된다. 즉 산신은 아이들에게 ‘금기’를 납득시키는 존재라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도노 지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날 아이들이 ‘복신’의 역할을 하면서 떡을 얻어간다고 한다. 이것도 앞에서 본 나마하계 그림과 매우 유사한 풍경이다. 즉 이 지역에서의 산신은 새해와 함께 맞이하고 싶은 내방신이자 도시가미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산신은 아이들에게는 만나서는 안 될 무서운 존재로서의 양의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산신은 위험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수반한 ‘시츠키’로 활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월대보름에 찾아오는 산신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복신인 것이다.

### 3. 나마하계의 ‘문화콘텐츠’로서 활용양상

#### 3.1 나마하계와 시츠키

12월 31일의 오오미소카(大海日)의 밤. 지금도 아키타현 오가 지방 곳곳에서는 나마하계(なまはげ)의 마쓰리를 한다. 현재까지 전승되는 나마하계 의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나마하계는 일본 귀신 오니(鬼)와 같은 가면은 뒤짚어 쓰고 짚으로 만든 도롱이와 같은 망토로 몸을 감고 있다. 또 맨발에 짚신을 신고 손에는 목제의 칼을 손에 지니고 있는 괴기한 모습을 한다. 이 나마하계 분장을 하는 것은 마을 청년들이다. 나마하계 가면에는 청색과 적색이 있으며 적색을 할아버지 나마하계(ジジナマハゲ), 청색을 할머니 나마하계(ババナマハゲ)라고 부른다(반대로 부르는 지역도 있다). 나마하계는 집에 들어갈 때 일제히 위-위-라는 괴성을 내며 들어간다. 옛날에는 짚신을 신은 채 방안으로 침입했다. 이때 문을 심하게 두들기거나 방 바닥을 강하게 밟거나 해 공포스러움을 조성한다.

우선 대문 앞에서 “새해 축하드립니다!(新年 おめでとう!)”라고 큰소리로 새해 인사를 하면 주인

8) 2017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현지조사

은 “매해 고생이 많습시다!(ねんどもご苦労さまたった!)라고 인사를 하며 나마하계를 집 안에 모신다. 집안에 들어오면 나마하계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한다.

“워- 워- 우는 아이는 없는가!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는 아이는 없는가!”

“만일 울거나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는 아이는 데리고 간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올해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해?” “함부로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산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나마하계 수첩에 잘 못한 일 다 기록되니까 잘 못하면 내년에 와서 혼내준다”

이런 식으로 나마하계는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아이들을 훈계한다. 예전에는 간혹 겁이 많은 아이들 중 일시적으로 기절하는 일이 생길정도였다고 하니 나마하계의 박력이 어느 정도 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나마하계가 한바탕 날뛰고 나면 집 주인이 나마하계에게 “아이들과 며느리는 울지도 않고 늦잠자지도 않습니다! 그만 용서해주시고 한잔 하시오”라고 말을 건다. 그러면 나마하계도 “그럼 이 정도에서 봐줄까” 라고 말하며 그릇 한 가득 찬 술을 꿀꺽꿀꺽 마신다. 나마하계와 주인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오늘 어디에서 머무는가?”

“신사 안 두류나무 밑에서 잘 생각이오”

“며칠이나 머무는가?”

“한 4, 5일 머물다 갈 생각이지만 내 부하는 일년 내내 마을에 있으니까 아이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언제든 데리고 갈 것이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꼬챙이를 영덩이에서 머리까지 찢러 불에 구워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인과 대화를 마치고 나마하계는 자리를 떠난다. 그러면 나마하계를 시중들던 한 명이 대신 들어와 떡과 음식 돈(錢)을 받아 나간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마하계와 각 집의 주민들은 서로 새해인사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악령을 진압하기 위해 양발을 크게 내딛는 걸음걸이는 재앙을 진압하는 마레비토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다름 아닌 “우는 아이는 없는가?” “게으른 아이는 없는가?” 라고 외치며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모습이다.

특히 여기에서의 나마하계는 앞에서 본 도노의 산신과 다르게 ‘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든지 ‘산으로 데려 간다’든지 산에 있는 모습을 좀 더 뚜렷이 강조한다. 또한 산에서 지켜보고

나쁜 일 한 것 다 기록할 것이라는 나마하게 수첩을 내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나마하게 앞에서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위험한 곳에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이렇듯 오가 지역 민속으로서 나마하계를 새해에 맞이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마하게 하는 존재를 상기시켜 한 해 동안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하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갓파를 활용해 아이들의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괴를 활용한 시즈케는 나마하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요괴를 활용한 시즈케는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나마하계는 산신의 속성을 지녀 ‘산’이라는 장소성과 ‘수첩’ 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마하계만의 시즈케 방식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 3.2 나마하계세토마쓰리의 ‘민속’적 가치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창조적으로 가공한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내포한다. 나마하계세토마쓰리(なまはげ柴灯まつり)는 1963년부터 오가지역에서 겨울철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나마하게 민속행사와 세토마쓰리라는 불 축제를 융합하여 시작한 것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역브랜드의 확장에 기여한 대표적인 마쓰리이다. 나마하계세토마쓰리는 매년 2월 두 번째 금, 토, 일요일에 신자신사(真山神社)를 행사장으로 하여 3일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펼쳐진다. 올해 2017년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행사기간인 3일 동안 행사를 보러 오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비교적 먼 곳에서 방문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sup>9)</sup>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가지역에서 행하는 나마하게 행사는 12월 31일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마하계세토마쓰리도 이 시기에 맞추어 연말에 실시했으나 연말에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2월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2월에 실시하고 나서 외부지역의 방문자 수가 늘어났다.

나마하계세토마쓰리의 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나마하계세토마쓰리(なまはげ柴灯まつり) 프로그램><sup>10)</sup>

1. 진가마사이(鎮釜祭)·유노마이(湯の舞)

9) 요시모토 코지, 배일현(2012)「일본의 지역문화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와 아키타 나마하게 세토축제 사례를 중심으로」『문화산업연구』제12권 제4호, pp.57-71

10) 나마하계세토마쓰리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s://www.oganavi.com/sedo/>



18:00~ / 신사 광장 입구

유노마이(湯の舞)라고 하는 오가 지방의 독특한 하라이 가구라(祓 神樂)를 봉납한다. 진가마사이(鎮釜祭)는 전통적인 유타테(湯立て) 제사로 큰 가마(大釜)에 뜨거운 물을 끓인다.

2. 나마하게 입혼(なまはげ入魂)

18:20~ / 참배길 입구

나마하게로 분장한 젊은이들이 참배길 입구의 들계단에서 신이 강림한 가면을 받아 들고 몸에 걸치기 시작한다. 이 의식으로 젊은이들은 나마하게化 되어 산으로 돌아간다.

3. 나마하게 행사 재현(なまはげ行事再現)

18:35~ / 가구라전(神樂殿)

오가 시내 각지에서 12월 31일에 열리는 민속 행사 ‘나마하게’를 재현하는 것으로, 나마하게가 각 집을 방문하여 혼계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 나마하게 춤(なまはげ踊り)

18:55~ / 세토불 앞(柴灯火前)

1961년에 아키타 지역이 낳은 대표적인 현대 무용가 故 이시이 바쿠 씨가 안무를 만들고, 아들인 작곡가 이시이 칸 씨가 곡을 붙인 곡에 용맹하고 씩씩한 춤을 볼 수 있다.

5. 나마하게 북(なまはげ太鼓)

19:05~ / 카구라 무대(神樂殿)

나마하게와 일본식 북을 결합한 새로운 향토 예능으로 ‘가내안진’, ‘오곡풍양’ 등을 비는 연주를 한다.

6. 나마하게 하산(なまはげ下山)·헌병(献餅)

19:25~ / 광장·참배길

햇불을 가린 나마하게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설산(雪山)에서 내려오는 그 용맹하고 환상적인 모습은 보는 사람을 매료시킨다. 그리고 관객 쪽으로 내려와서 경내를 누비며 돌아다니는 것이 마쓰리의 클라이맥스이다. 이어서 행하는 ‘헌병(献餅)’은 신에게 바치는 호마 떡(護摩餅)을 신의 사자인 나마하게에게 바치는 의식이다. 신관이 바치는 세토 불에 구워진 큰 떡은 신의 힘이 깃든 것으로 일컬어진다.

7. 각 지역 나마하게 난입

20:00~ / 카구라 무대(神樂殿)·광장

시내 각 지구의 특색 있는 나마하계가 난입한다.

8. 호마떡 나누어주기·기념촬영

~20:30 / 카구라 무대 앞

세토블로 구운 큰 떡을 잘라 나마하계가 방문객에게 나누어준다. 이 호마 떡은 재난을 없애는 부적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나마하계세토마쓰리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행사 프로그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마하계 행사재현, 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볼거리가 마쓰리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마쓰리의 현장에 가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 가장 분위기가 고조되는 순간이 나마하계가 축제가 펼쳐지는 신잔신사 경내로 내려와 난입할때이다. 이때 나마하계는 아이들의 몸을 터치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거나, 부모들은 나마하계의 도롱이에서 떨어진 짚을 주워 아이에게 건네주거나 직접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진1> 나마하계세토마쓰리에 온 아이들 모습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면, 여기에 방문하는 많은 외부 지역 사람들에게 ‘나마하계=내방산도 시가미’으로서의 제사성(祭祀性)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나마하계세토마쓰리에 끌어들이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아울러 이날 아이들에게 나마하계를 보여주는 것 자체도 ‘시즈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나마하계세토마쓰리는 오가지역이 아닌 일본 내 타 지역 부모들이 자식들의 한 해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적인 것이다. 나마하계세토마쓰리는 아이들의 한해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로서의 컨셉을 명확히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 오는 관광객 중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 중 대다수는 나마하계 민속이 제사성이나 종교적 가치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마하계세토마쓰리는 토착의 민속문화를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킨 전형적인 에스니투어리즘(ethnic tourism)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마쓰리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기대하는 것도 이 지역 주민들의 관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오가의 나마하계는 현재 오가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지역문화콘텐츠 중 하나이다. 즉 나마하계세토마쓰리는 로컬문화로서의 나마하계를 통해 일본 전역에 아키타현 오가시라는 지역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 3.3 ‘글로벌콘텐츠’로 진화하는 나마하계

최근 일본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일본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로 ‘일본의 마쓰리 RE-DESIGN 프로젝트’에 주목하고자 한다.<sup>12)</sup> 이 프로젝트는 일본 전국 각지의 민속행사와 축제를 IoT(사물인터넷)과 VR(가상현실) 등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현대의 사람들과 해외의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민속축제 등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여 일본 지역문화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테마로 선정된 것이 오가의 나마하계이다. 선정이유는 게으른 마음을 혼내주는 전통적인 시츠키(가정교육), 가족애의 재확인,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 등 나마하계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와 재해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치하라 에츠고(市原えつこ)가 전제 컨셉 및 기획을 담당하여, 현대의 도쿄를 무대로 나마하계가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였다.<sup>13)</sup> 아래는 이 영상콘텐츠 속 자막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개괄한 것이다. 작품 제목은 <ナマハゲ、東京に現れる Japanese traditional visiting deity "Namahage" appeared in Tokyo> 이다. 이 작품은 크게 아키타현 오가시

11) 平辰彦(2007)「無形文化遺産と持続可能な観光における比較研究-秋田県内のナマハゲ系儀礼を事例として」『ノースアジア大学国際観光研究』ノースアジア大学総合研究センター国際観光研究所、pp.35-40

12) 일본의 마쓰리 RE-DESIGN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matsuri-redesign.com/>  
일본무역진흥기구가 공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3) 이치하라 에츠코씨는 일본적인 문화와 토착의 풍습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 로봇, 가상현실, 터치센서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체험형 작품을 만들어 화제를 모은 미디어아티스트이다.

역의 나마하계에 대한 설명과, 현대도시 도쿄에 나타나는 나마하계로 구분할 수 있다.

### 1) 아키타현 오가지역의 나마하계에 대한 설명

옛날부터 일본에는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때로는 오니라고 부르고 때로는 신이라고 불렀다.

그 대표 격이 오가의 나마하계이다. 나마하계의 풍습이 남아있는 이 장소에  
조사를 위해 방문한 한 명의 여성.미디어 아티스트 이치하라 에츠코  
여기에 5개의 나마하계가 모셔져 있습니다. 5개의 나마하계가요?  
설달그믐날 밤, 나마하계는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나타난다.

우는 아이는 없는가? 게으른 녀석은 없는가?

손에는 커다란 식칼을 들고 있다.

말하자면 게으른 사람의 손과 발에 생기는 피부껍질을 식칼로 벗겨내어 성실한 사람으로 만든다.

게으른 녀석은 없는가?

하지만 나마하계는 단순히 무서운 존재만이 아니다.

‘아이의 가정교육’ ‘부모자식간의 깊은 정을 재확인’

이것들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기록한 ‘나마하계 수첩’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나마하계 수첩?

모든 것들을 나마하계가 간파하고 있다는 건가요?

즉 나마하계란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나마하계 각 지역과 사회의 상황에 맞추어 그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

‘오가 시’만으로 80종류 이상 계다가 일본 각지에 여러 가지 종류가 확인되고 있으며,

조만간 도쿄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 2) 현대 도시 도쿄에 나타나는 나마하계

도쿄의 나마하계는 거리 곳곳에 널리 퍼져있으며, 가상과 현실 사이를 넘나들며 존재한다.

감시카메라, 집음(集音)마이크 구석구석까지 모니터링 되는 안전의 거리 ‘도쿄’

클라우드(cloud)에 수록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2019년 도쿄에서, 폭발적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SNS.

Namahage note, 지역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 개발된 이 서비스에는 각 에어리어(area)의 ‘나쁜 애  
정보’가 차례로 업로드(upload)되고 있다. 아키하바라판, 하라주쿠판, 스가모판.

유저(user)로부터 보고된 얼굴인식 데이터로 감시카메라의 영상과 대조  
화상 해석에 의해 인물을 특정하고 뒤를 쫓는다.  
-하략-

이 프로젝트 영상콘텐츠에서는 나마하게를 통해 무엇을 알리고자 한 것일까. 여기에서는 ‘오가의 나마하게’를 통해 오가라는 지역문화를 넘어, ‘일본문화’로서 나마하게와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 ‘도쿄’를 함께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이 드러난다. 이것이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에 발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마하게를 잘 모르는 일본사람만이 아닌 ‘외국인’ 들에게 일본문화의 가치를 최대한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등과 융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2> 도쿄의 나마하게(ナマハゲ、東京に現れる)

현대사회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중시되고 있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지역성-세계적 보편성-지역성과 세계성(보편성)의 결합에 의해 재구성되는 융합적 성격을 지향한다.<sup>14)</sup> 이 도쿄의 나마하게라는 영상콘텐츠도 전형적인 클로컬 문화콘텐츠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오가’의 나마하게가 ‘도쿄’의 나마하게가 된 것은 오가의 나마하게가 한 지역을 넘어 일본문화의 대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오가라는 지역만이 아니라 나마하게가 지닌 ‘민속’적 가치를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쿄에 나마하게가 등장하게

14) 박치완「왜 글로컬문화콘텐츠인가?」『인문콘텐츠』제20호, pp.15-16

되는 배경을 재해석하여 보여준다. 이때 오가의 나마하계는 오가라는 로컬리티(지역성)와 함께 아키하바라, 하라주쿠, 스가모 등 도쿄의 로컬리티와 융합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로컬리티는 세계 보편적 기술 및 보편적 가치관 등과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SNS 등 현대의 문화기술을 활용해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의 가치를 반영하고, 나쁜 아이를 벌주어 착하게 만든다는 나마하계만의 가정교육은 보편적 가치관으로 기반으로 하여 문화를 달리하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즉 “우는 아이 없는가?”, “게으른 아이 없는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 산에 데리고 가서 혼내준다”와 같은 오가지역의 전통적 시즈케는, 도쿄라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재등장하여 가상현실 등을 통해 나쁜 아이를 혼내서 착한 아이로 바꾸어주는 현대의 나마하계로 재탄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로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가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때에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변용을 유발한다. 즉 현재 오가의 나마하계는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여 일본문화 홍보를 위해 세계에 발신 되고 있는 것이다.

## 4. 나오며

본고에서는 나마하계의 ‘민속’적 가치를 규명하고, 그 가치가 지역과 국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문화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나마하계는 가정교육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민속 문화로 잘 드러낸다는 점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속이 ‘지역문화’를 알리는 나마하계세토마츠리와, ‘일본문화’를 알리는 ‘일본의 마쓰리 RE-DESIGN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용되어 기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요괴를 활용한 시즈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마하계는 산신의 속성을 지녀 ‘산’이라는 장소성과 ‘수첩’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마하계만의 시즈케 방식의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속적 가치가 다른 요괴에 의한 시즈케 보다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도가 높은 점으로 판단된다. 나마하계세토마쓰리는 토착의 민속문화를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킨 전형적인 에스닉투어리즘(ethnic tourism)에 해당된다. 이 마쓰리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기대하는 것도 이 지역주민들의 관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콘텐츠로서 나마하계세토마쓰리는 로컬문화로서의 나마하계를 통해 일본 전역에 아키타현 오가시라는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마쓰리 RE-DESIGN 프로젝트’에서 오가의 나마하계는

도쿄라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재등장 하여 가상현실 등을 통해 나쁜 아이를 혼내서 착한 아이로 바꾸어주는 현대의 나마하계로 재탄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오가의 나마하계는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여 일본문화 홍보를 위해 세계에 발신되고 있는 것이다.

**【参考文献】**

박치완「왜 글로벌문화콘텐츠인가?」『인문콘텐츠』제20호, pp.15-16  
야나기타 구니오 지음, 김용의 역(2009)『도노모노가타리』전남대학교 출판사  
요시모토 코지, 배일현(2012)「일본의 지역문화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와 아키타 나마하계 세도축제 사례를 중심으로」『문화산업연구』제12권 제4호, pp.57-71  
平辰彦(2007)「無形文化遺産と持続可能な観光における比較研究-秋田県内のナマハゲ系儀礼を事例として」『ノースアジア大学国際観光研究』ノースアジア大学総合研究センター国際観光研究所, pp.35-40  
八木康幸(2010)「なもみはげたか-折口信夫、柳田国男とナマハゲに関するノート」『人文論究』関西学院大学人文学会, pp.130-137  
나마하계세토마쓰리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s://www.oganavi.com/sedo/> (열람일:2016.8.1.)  
일본의 마쓰리 RE-DESIGN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matsuri-redesign.com> (열람일:2016.8.1.)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ity.oga.akita.jp/index.cfm/14,12737,52,html> (열람일:2016.8.1.)  
오가의 나마하계 홈페이지 참조 <http://www.namahage-oga.akita.jp/index.html> (열람일:2016.8.1.)

---

논문투고일 : 2017년 04월 02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

---

 < 要 旨 >
 

---

## 아키타현 나마하계의 ‘민속’적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조규현

나마하계는 원래 아키타현 오가반도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된 정월 대보름 행사이자 이 민속행사에 나타나는 내방신을 가리킨다. 나마하계로 분장한 마을 청년들이 각 집에 방문하여 ‘게으른 아이는 없느냐?’ ‘우는 아이는 없느냐?’라고 아이들을 혼시하고 겁박하는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무형문화재로서 뿐만 아니라 현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되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명도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나마하계의 ‘민속’적 가치를 규명하고, 그 가치가 지역과 국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문화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나마하계는 가정교육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민속 문화로 잘 드러낸다는 점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속이 ‘지역문화’를 알리는 나마하계세토마쓰리(namahage-seto matsuri)와, ‘일본문화’를 알리는 ‘일본의 마쓰리 RE-DESIGN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용되어 기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The ‘Folk’ Values of Akita Namahage and its Application as ‘Cultural Contents’

Cho, Kyu-Heon

Namahage is a Jeongwol Daeboreum (festival held during the first full moon on the lunar new year) event that has been traditionally passed down at what is currently known as the Oga Peninsula, and Namahage refers to the ‘Inner Seeking God’. Youths dressed as Namahage visit each house in the village inquiring ‘Are there any lazy children? Are there any crying children?’ to instruct and intimate young children. This is not only a form of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but currently the Namahage is a character that symbolizes ‘hyun’ and is highly recognized around the nation. In this research study, the ‘folk’ value of Namahage is examined and how Namahage is applied within the cultural contents that raises and propagates awareness of these values within the nation and internationally is explored. It can be said that the aspect of Namahage that applies it as a cultural contents where its values are well manifested as universal values through folk values through familial education is its most compelling application. In this research study, the various different forms and their functions through the Namahage-seto Matsuri, which raises awareness for ‘regional culture’ and Matsuri RE-DESIGN, which raises awareness for ‘Japanese culture’ were explored.